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098-6681
jisoo.jeong@meritz.co.kr

2018.2.26

1 주가 현황

	수익률(%)				P/E(x)		P/B(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을 추이
	1W	1M	3M	YTD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KOSPI	1.2	-4.8	-3.6	-0.6	9.5	9.5	1.0	1.0	2.0	2.0	
통신업종	-0.5	-9.7	-6.8	-8.6	7.8	7.8	0.8	0.8	4.0	4.0	
SK텔레콤	-1.0	-11.9	-7.6	-9.6	7.0	7.2	0.9	0.8	4.2	4.2	
KT	2.0	-6.3	-6.3	-6.8	9.6	9.2	0.6	0.6	3.8	4.1	
LG유플러스	-2.7	-16.9	-6.6	-8.9	9.3	8.9	1.0	0.9	3.5	3.9	
AT&T	-0.8	-0.8	5.5	-5.6	10.6	10.4	1.6	1.5	5.5	5.6	
Verizon	-2.9	-10.9	2.7	-8.8	10.7	10.4	4.1	3.5	5.0	5.1	
T-Mobile	-0.6	-7.6	-2.6	-5.4	17.9	14.3	2.2	2.0	0.1	0.3	
Sprint	-3.5	0.8	-13.8	-10.0	9.0	N/A	0.9	0.8	0.0	0.0	
NTT Docomo	0.9	-1.6	-5.5	1.5	13.9	14.0	1.7	1.6	3.7	4.0	
KDDI	0.6	-7.6	-15.2	-6.7	11.1	10.5	1.7	1.5	3.5	3.8	
Softbank	1.0	-5.4	-9.1	-0.3	21.3	13.2	2.0	1.7	0.5	0.5	
China Mobile	1.4	-9.7	-6.2	-5.7	10.3	9.8	1.2	1.1	5.0	5.0	
China Unicom	2.2	-9.2	-12.1	-2.5	24.3	16.4	0.8	0.8	1.5	2.6	
China Telecom	0.6	-10.3	-8.7	-6.5	10.5	9.6	0.7	0.6	3.9	4.0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 업종 코멘트

전주 동향

2월 셋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1.7%p 수익률 기록하며 Underperform
통신비 인하 규제와 그에 따른 실적 우려 여파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상황
주가는 밸류에이션 하단에 머물러 있어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나 추가 상승 모멘텀 역시 부재한 상황
국내 기관은 LG유플러스 순매수, 외국인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순매도 지속

금주 전망

금주 주요 이벤트는 25일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과 26일 MWC 2018 개막
지난 1월 페이스북은 MWC에서 통신사들과 만나 본격적인 망 이용료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사 전달
따라서 이들의 회의 성사 여부와 망 이용대가 협상 수준에 따라 국내 통신업종 선행 개편 가능
외국인 이탈이 추가 하락을 주도하는 현 상황에서는 KT가 보수적인 투자관점에서 가장 안정적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18	19	20	21	22 9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23	24
25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26 MWC 2018 개막(2-3/1)	27	28	3/1 삼일절	2	3

3 주간 뉴스

▶ LG유플러스 '완전무제한' 요금... 출시 4인가족 월 8만원 절감 (ETNews)

- LG유플러스, 월 88,000원에 데이터 용량과 속도 제한을 없앤 완전무제한 요금제 출시
- 완전무제한 요금제에는 월 40GB 한도에서 지인 및 가족에게 데이터 나눠쓰기가 가능
- 요금제 활용 시 4인 가족 기준 월 26만원 수준의 가계통신비를 18만원 수준으로 절감 가능
- ⇒ 가입자 규모 및 주파수 캐파 감안 시 SK텔레콤과 KT가 동일한 상품을 출시하긴 어려울 전망
- ⇒ 무선 ARPU 등 주요 지표 부진은 여전하나, 가입자 확대 및 해지 방어에는 효과적

▶ 방통위,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 (매일일보)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
- 협의회는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상생과 규제 형평성 등을 다루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
- 협의회에는 정부 기관 3곳과 연구단체, 통신 3사,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과 페이스북 등이 참석
- ⇒ 12월까지 국내외 사업자 역할, 망중립성, 제로레이팅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
- ⇒ 통신업 관점에서는 페이스북과 구글의 정당한 망 이용대가 제공 여부가 주요 관심사

▶ 美 망중립성, 4월 23일 공식 폐기된다 (ZDNet Korea)

- 미국 FCC가 22일 망중립성 폐기 내용을 담은 '인터넷 자유회복' 문건을 연방관보에 게재할 예정
- FCC, 작년 12월 Title 2로 분류된 ISP를 Title 1으로 재분류하는 '인터넷 자유회복' 문건을 통과
- 연방관보에 게재 뒤 60일 이후 공식 발효되는 만큼 오는 4월 23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전망
- ⇒ 미국에서 시작된 망중립성 폐지 논의를 국내 실정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음
- ⇒ 다만, 정당한 망 사용대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만큼 업종 선행 개편에는 긍정적

▶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성과없이 '빈손' 종료 (Digital Times)

-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가장 큰 쟁점인 보편요금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
- 협의회는 작년 11월 출범 후 단말기 자급제, 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 보편요금제 등을 논의
- 협의회는 다음 달 중 9차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국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계획
- ⇒ 단말기 자급제는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자급제용 스마트폰 공개로 소기의 결과 달성
- ⇒ 다만, 보편요금제의 경우 국회로 공이 넘어 갔으며, 6월 법안 발의 과정에서 윤곽이 나타날 것

▶ 정부-이통사, 보편요금제 실무 논의 추진 (ZDNet Korea)

-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종료에도 정부는 통신사와 보편요금제 실무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
- 보편요금제 입법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실무 차원에서 논의를 지속한다는 계획
- 이통사 역시 저가요금제 부담, 약관 조정 등 이용자 혜택을 늘리겠다는 점에서는 합의
- ⇒ 과기정통부, 집의응답에서 보편요금제 법제화 목표가 아닌 이용자 혜택 강화가 목표임을 강조
- ⇒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기 위한 통신사들의 저가요금제 혜택 강화 요금제 출시 전망

▶ 삼성 이어 LG도 자급제폰 내놓는다... G7 유력 (Herald corp.)

- 삼성전자가 이어 LG전자도 올해 하반기부터 '자급제' 스마트폰 판매를 시작할 예정
-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G7부터 자급제 형태의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
- 주요 제조사들의 자급제 스마트폰 출시로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속도대 전망
- ⇒ 기존 자급제 단말기가 비싸고 출시도 늦었던 반면 이번에는 출시 시기와 가격이 동일
- ⇒ 자급제 단말기에 알뜰폰 유심요금제 가입 시 요금이 저렴해지는 만큼 알뜰폰 활성화 여부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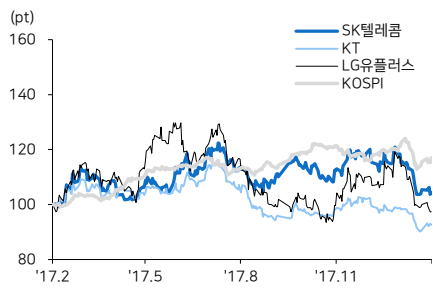
4 주요 지표

(십억달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한국	SK텔레콤	241,500	18.1	16.4	16.6	1.5	1.5	2.5	2.4	4.5	4.6	5.1	5.0	15.0	12.9
	KT	28,200	6.8	21.7	22.1	1.3	1.3	0.7	0.7	4.5	4.6	2.8	2.7	6.2	6.2
	LG유플러스	12,750	5.2	11.7	11.9	0.8	0.8	0.6	0.6	2.4	2.6	3.3	3.2	10.9	10.5
미국	AT&T	36.7	225.5	160.3	162.2	33.7	34.0	20.7	21.3	53.0	53.6	6.4	6.4	15.2	15.4
	Verizon	48.3	197.0	127.9	129.4	30.0	30.7	18.7	19.6	47.4	48.1	6.6	6.5	43.1	37.0
	T-Mobile	60.1	51.3	43.2	45.3	5.4	6.2	2.8	3.4	11.7	12.6	6.9	6.4	11.1	13.9
	Sprint	5.3	21.2	32.5	32.6	2.6	2.4	5.7	-0.0	11.2	11.8	4.8	4.5	9.2	-0.3
일본	NTT Docomo	2,702	98.9	44.5	45.7	9.1	9.5	6.6	6.6	13.9	14.3	6.6	6.5	12.5	11.9
	KDDI	2,618	63.6	46.8	48.0	9.0	9.5	5.4	5.7	14.4	14.9	5.2	5.0	15.5	15.3
	Softbank	8,896	91.9	84.7	86.8	11.7	11.8	3.3	6.7	25.4	25.9	8.7	8.5	8.4	15.9
중국	China Mobile	74.8	195.6	123.7	128.7	20.5	21.2	19.1	20.1	45.1	46.9	2.7	2.6	11.8	11.7
	China Unicom	10.3	40.3	46.1	48.7	2.0	3.0	1.5	2.4	14.4	15.5	4.3	4.0	3.3	4.9
	China Telecom	3.5	36.0	61.4	63.7	5.0	5.5	3.4	3.8	16.7	17.4	2.8	2.7	6.5	6.7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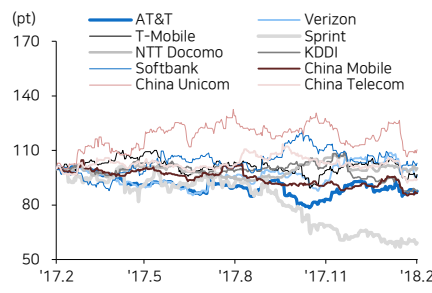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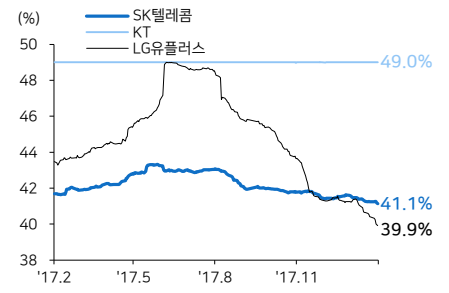
자료: WiseFn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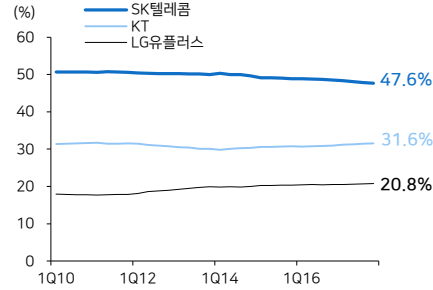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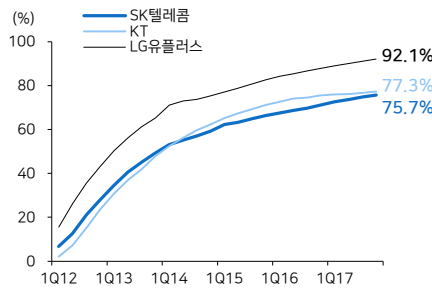
자료: WiseFn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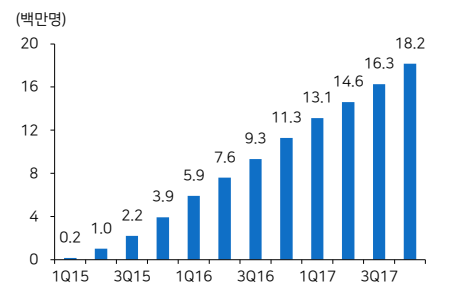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보급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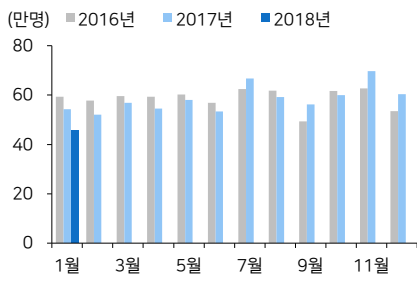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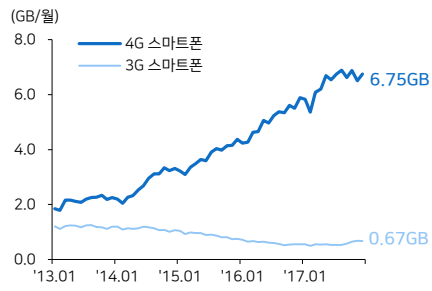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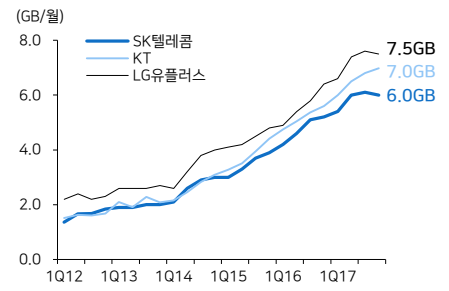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2월 26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2월 26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2월 26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정지수)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